

뇌졸중 치료 발전에 힘쓰다



권순억 교수는 뇌졸중 진료와 진단 체계를 한 발 더 나아가게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목표다.

권순억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자신의 장점으로 끈기를 꼽았다. 학창 시절부터 무언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해답을 풀기 전까지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다.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를 꿈꾸기도 했던 권 교수가 결국 의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도 이러한 자신의 성향을 좇았던 것 같다고 했다.

“천문학이나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천부적이고 창의적인 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천재는 아니었지요. 대신 끈기 있게 파고드는 것은 자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환자의 병에 대한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되살린다면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렇게 선택했던 의사의 길은 제 적성에 맞았습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신경과

서울대학교 전공의 시절 권순억 교수는 김종성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의학을 탐구하는 과정과 자세에 대해 다시 배웠다”는 권 교수는 이후 김종성 교수의 권유를 받고 1997년 서울아산병원(당시 서울중앙병원) 신경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신경과는 어떤 의학 분야와 비교해도 재밌는 분야라고 느꼈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보고, 어떤 부분에 병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맞추는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느낌이었지요. 그리고 제가 학생시절인 1980년대에는 MRI와 같은 신경계 환자의 진단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력과 진찰

을 통해서 밝혀진 근거에 입각해서 환자의 질병을 정의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만들어 나가야만 했지요. 다른 어떤 의학 분야보다도 신경과학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된 계기입니다.”

신경과는 신경계 질병을 다루는 임상의학이다. 뇌, 척수 및 신경근, 말초신경, 신경근접합부, 근육 및 장기까지 인체의 대부분이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다보니,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곳곳에서 다양한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경과에서 다루는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 중에서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병으로 권순억 교수의 주요 진료 분야다.

“뇌는 신경세포가 많은 활동을 하므로 혈관이 매우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혈전에 의해서 막히거나 뇌혈관의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하면 담당 영역의 신경세포는 죽게 되지요. 이런 과정으로 신경계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졸중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발생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이를 CT나 MRI와 같은 검사법으로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권순억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전상범 교수팀과 함께 혈중 아미노산 중 하나인 호모시스테인 증가가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단서를 찾아 지난 2014년 학계에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 전까지 심혈관질환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호모시스테인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세계적인 의학전문학술지 ‘란셋 뉴로로지(The Lancet Neurology)’에 게재되기도 했다.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2017년 국제뇌졸중컨퍼런스의 메인세션에서 권 교수는 뇌에 미세출혈이 나타난 아시아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로스타졸과 아스피린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하며 학계의 각광을 받았다. 이 발표에서 권 교수는 실로스타졸을 복용해 미세출혈이 나타난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아스피린 복용군보다 심혈관질환이 적게 발생했다는 결과를 밝혀내며 뇌졸중에 대한 새로운 예방대안으로 실로스타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2019년 권순억 교수팀은 타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심근손상을 반영하는 혈중 트로포닌 수치가 급성 뇌경색 환자들의 주요 심뇌혈관 합병증과 사망률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심장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작년 11월에 열린 서울아산병원 뇌졸중센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는 권순억 교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College of Cardiology)’에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권순억 교수는 원인불명의 색전증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과 뇌경색 환자들의 신경세포를 살리는 약물에 대한 효능을 연구하고 있다.

권 교수는 그동안 쌓아 올릴 수 있었던 모든 결과물이 동료와 선배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최근 뉴스위크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를 세계 8위 수준으로 꼽기도 했지요. 서울아산병원은 주요 저자로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주는 편입니다. 저도 전임 강사 시절 책임저자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그만큼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연구자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어서 권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시스템과 인적 지원 역시 대단하다고 밝혔다. 임상연구 심의위원회나 모니터링하는 조직들이 체계적이고, 뛰어난 실력의 연구 간호사들로 이뤄져 있으며, 모든 연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기에 연구에 대한 성과를 내는데 최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신경과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뇌졸중 진료와 진단 체계를 한 발 더 나아가게 한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글 편집부